

롯데,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 참여

포스코 포함 4곳 인수의향서 제출 ... 자원개발·글로벌화 강점이 매력

포스코와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DPC)에 이어 롯데그룹도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나섰다.

2월2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캠코(자산관리공사) 24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와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DPC), 롯데상사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나선 것은 글로벌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스코 역시 자원개발이나 해외마케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추진해왔다.

DPC는 김우일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 상무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나머지 한 곳은 포스코와 롯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국내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은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포스코와 롯데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캠코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1월 말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50%+1주 이상을 공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공고했으며 최종입찰을 거쳐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6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5>